

신 성장동력, 과학기술에서 답을 찾다

도, 과학기술위 본회의 신규 국책사업 발굴 세부 과제 기획 확정

전북도는 30일, 2017년 제2차 과학기술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과학기술 기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수립, R&D사업 전주 기적 관리체계 마련 및 신규 국책사업 발굴 세부과제 기획(안)을 확정하는 등 전북 산업경제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올해에는 위원회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농생명·식품, 바이오융합, 탄소·융복합, 자동차·기계, 그린에너지, 창의융합신산업 등 6대 연구회를 운영, 신규 사업발굴을 위한 분과 TF 회의를 약 70여회 개최하여 연간 150여명의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했다.

과학기술위원회는 2008년부터 총 303건의 신규과제를 기획하고 이중 88건을 국가사업에 반영, 4,300억원 규모의 국비를 확보하는 등 지역산업의 구조변화에 대응하여 미래 발전가능성을 제시하며 지역산업 발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다.

제5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은 국가과학기술 정책기조를 반영, 전북 지역의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단계적인 발전전략으로서 그간의 전북의 R&D 역량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5년간의 지방과학기술 기본방향 및 투자 계획을 수립했다.

'융합과 혁신이 공존하는 스마트 전북 실현' 비전 설정 및 6대 중점추진과제 및 16대 세부과제를 도출, 향후 별도의 기획위원회를 구성하여 연차별 세부시행계획을 마련하여 12월에 확정 예정이다.

또한, 도 지원 R&D사업의 성과확산 촉진과 예산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

해 총 268개의 지방과학기술진흥 투자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결과를 심의, 이에 대한 개선방안과 R&D사업의 전주기적 관리체계 구축 방안이 논의됐다.

급변하는 기술시장정책 변화에 대응한 융복합 과제 발굴에 초점을 맞추어 성장동력 창출을 통한 신산업 육성기반 조성 목적의 신규 국책사업 발굴 40개 세부 추진과제를 발표하고 완성도 제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6대 연구회 중심의 신규 국책사업 발굴 40건 주요 내용은 '전북형 농생명 식품 산업 고도화' 및 '고부가가치 동물산업 육성' 등 총 6건(1,160억원)의 세부과제를 발굴하여 농생명 산업의 고도화 기반을 마련에 중점적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또한 '바이오융합', '탄소 융복합소재', '그린에너지' 등이다.

이날 발표된 신규 국책과제는 정부

부처 및 정책전문가의 검토 자문 등을 통해 정부정책의 부합성을 높이고 국가사업화 추진을 진행하는 등 발굴과제의 완성도 제고를 추진하기로 했다.

최정호 정무부지사는 "최근 전북을 대표하는 주요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등 지역경제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어 지역경제 도약의 전기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라며,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실현할 국책사업 발굴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우리 도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과 지역경제 발전방안 마련에 다 같이 지혜를 모으자"고 당부했다.

또한, "오늘 발표한 신규 국책사업은 세부과제별로 완성도를 제고하여 국가 예산반영을 통해 도내 산업현장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전주교도소 이전사업 추진

30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전주교도소의 이전사업 추진과 관련, 김승수 시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북 마을기업, 7년 연속 우수마을기업 영예

전북 마을기업인 '영농조합법인 황토마을'이 2017년 행정안전부가 개최한 전국 마을기업 박람회의 '우수마을기업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해 인증서와 인센티브 7,000만원을 받는다.

이번 최우수 마을기업 선정으로 전북도는 최우수상 4번, 우수상 3번을 수상함으로써 7년 연속 행정안전부 우수마을기업에 선정되는 성과를 냈다.

행정안전부는 마을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공동체성, 사업 경쟁력 및 자립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2011년부터 매년 우수 마을기업을 선정해오고 있다.

행안부에서는 전국 마을기업 중

영농조합 황토마을, 경진대회서 최우수상 수상

각 시도에서 추천한 마을기업에 대해 1차 서면심사 후 지난 10월 29일 경진대회를 거쳐 최우수 2개소, 우수 5개소, 장려 10개의 마을기업을 선정했다.

마을기업 황토마을은 2014년 공동체성과 사업성을 인정받아 신규 마을기업으로 지정받은 후 2015년도 2차년도 사업에 선정된 후 우수 마을기업으로서의 기반을 다져왔으며 결국 올해 전국 우수마을기업 최우수상까지 수상하게 됐다.

수상 배경으로는 인근 지역의 자원인 고구마를 이용한 근고구마

말랭이 제품의 우수성과 2018년도 신규 품목인 단호박 말랭이 및 아이스 고구마 개발, 전국 유일의 실용인 역사문화관 건립예정 등 마을기업으로서 경쟁력, 공동체성과 성장가능성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공동체성 강화를 위해 장애인과 이주여성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하여 황토 글방을 조성하고 마을역사 이야기책 발간 전시 등 마을기업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처음 전북도 시책으로 추진한 예비마을기업 육성사업에 선정된 정읍의 해이람 영농조합법인이 예비마을기업 전국 경진대회에서도 우수상을 수상하여 전북의 마을기업 육성사업을 소개함으로써 타기관의 마을기업 육성사업 추진에 모범사례가 됐다.

도와 마을기업 지원기관인 전북경진원은 경쟁력을 가진 마을기업을 적극 발굴·육성하고 지속적인 판로개척과 마케팅 지원, 경영컨설팅과 맞춤형 교육 지원 등을 통해 도내 모든 마을기업이 경영능력과 지역 공동체성을 확보해 내실 있는 우수마을기업으로 성장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진성 기자

/김진성 기자

전북전략식품 활성화 힘모은다

도농업기술실용화재단 R&D 상생협업 추진

전북도는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따라 지난 7월에 익산시(평동로)로 이전한 농업기술실용화재단과 지역전략식품 활성화를 위한 R&D 상생협업을 추진한다.

주요내용은 지역 향토자원의 6차 산업화를 통한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R&D 기획능력 교육과정에 전문가 참여, 기술이전, 연구과제 중복여부 사전평가 및 사후관리 등이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역전략식품

등 6차산업화 사업의 R&D 과제 수행 시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사전평가를 통해 과제별 중복 또는 성과도출이 어려운 연구과제는 사전에 배제하고 연구결과에 대한 평가, 자료보완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R&D 사업성 평가를 통해 개발된 기술이 있는 경우, 동 기술을 사업 참여자에 안내하여 기술이전을 유도함으로써 비용 및 시간절감을 통한 지역전략식품 R&D 발전을 이끌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R&D 평가 및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R&D 평가 내실화로 사업 리스크 최소화, 신제품 개발확대 및 효율적 예산집행이 더욱 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전북 혁신도시 시즌 2에 발맞춰 전북으로 이전한 한국식품연구원, 농촌진흥청 등 농업 관련 전문 공공기관과 긴밀한 정책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농업발전 전환점을 만들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창업기업 투자 IR 콘테스트 눈길

도전! 드림투자벤처 로드쇼 내달 2일 창조경제혁신센터 총 상금1억1000만원 쏜다

전북도가 30일, 창업붐 조성과 우수 창업기업 발굴을 위한 2017 도전! 드림투자벤처 로드쇼(이하 로드쇼)를 11월 2일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창업의 메카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창업기업들의 뜨거운 관심속에 40개 기업이 참가, 1차 서면평가를 거쳐 최종 10개 기업이 본선에 진출했다.

로드쇼는 도내 우수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활성화와 판로개척을 위해 전라북도,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전북테크노파크, 전북경제통상진흥원 등 4개 기관의 협업으로 개최되는 창업기업 투자유치 행사다.

작년에 처음 개최한 로드쇼에서는 본선 진출 2개 창업기업이 벤처투자회사로부터 우수한 사업성을 인정받아 편

드투자를 받는 등, 투자와 기업 알리기가 절실한 창업기업에게 성공창업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고 있다.

본행사에는 서울투자파트너스, SI투자파트너스 등으로 구성된 전문심사위원의 평가를 통해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팀을 선발, 총 1억1000만원 상당의 사업화 자금과, 기업별 스토리영상을 제작해 홍보마케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라북도 유희숙 경제산업국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서 우수한 기술력과 아이디어를 갖춘 창업기업이 사업자금 투자를 받아 강소 기업으로 발전해, 궁극적으로 전라북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증진을 통한 일자리창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17 도전! 드림-투자벤처 로드쇼는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개최되며, 궁금하거나 더 자세한 사항은 063)219-2173(전북테크노파크 SW융합팀)에 문의하면 된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